

오순절 후 일곱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7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4년 7월 7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9 장 “주 은혜를 받으러” (통일 39)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27 번 시편 51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권영수 장로
어린이설교 Children’s Message		James Andrews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고후(2 Cor.) 12:2-10, 막(Mark) 6:1-13	염신철 집사
찬 양 Anthem	“주의 품에 안기려”	찬양대
설 교 Sermon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충 만”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Closing Hymn	310 장 “아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410)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지만,

우리는 감정이 앞서고, 말이 앞서다 보니,

우리의 조금함과 불안함과 분노를 여과없이 드러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은혜를 허락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시선은 더욱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매순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 1:19)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후 12:9)

“But he said 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Therefore I will boast all the more gladly about my weaknesses, so that Christ’s power may rest on me.” (2 Cor. 12:9)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7/7 (주일)	7/8 (월)	7/9 (화)	7/10 (수)	7/11 (목)	7/12 (금)	7/13 (토)
	수10	수11	수12,13	수14,15	수16,17	수18,19	수20,21
본문	시142,143	시144	시145	시146,147	시148	시149,150	행1
	렘4	렘5	렘6	렘7	렘8	렘9	렘10
	마18	마19	마20	마21	마22	마23	마24

수/요/ 찬/양/집/회

수요 찬양집회 (7/10수 오후730)

토/요/ 새/벽/기/도/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행13:1-5)

토요 새벽기도회(7/13토 오전630)

“나의 도움, 나의 소망”(시146:1-10)

지난주일 (6/30) 말씀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8:7-15, 시 30:1-12)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잘 산다”는 의미와 “돈이 많다”는 의미를 혼동합니다. 하지만, 이 둘(잘 사는 것과 ‘돈이 많은 것’)은 엄연히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잘 산다”는 것은 “돈이 많다” 또는 “부자”라는 의미이기 보다, (일차적으로는) “관계가 좋다”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게 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8:9)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한 마디로 역설입니다. 그런데 이 역설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는지? 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하게 응답하고,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Grace Driven Life" 즉, "은혜가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하고, 2) 둘째는, 기꺼이 나누고, 기꺼이 희생하며, 기꺼이 섬기려는 마음을 겸비해야 하며, (마지막) 3)셋째는, 일체의 비결인 '자족함'을 배우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 2:7)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감사함으로, "은혜가 이끄는 삶(Grace Driven Life)"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